

말뭉치에 기초한 ‘몸’과 ‘마음’의 인지적 의미 연구

- 형용사와의 공기관계를 중심으로 -

석수영*

Ⅱ 차례 Ⅱ

- I. 들머리
- II. 연구 대상 및 정량 분석 특징
- III. 말뭉치에 기초한 ‘몸’과 ‘마음’의 인지적 의미 분석
- IV. 마무리

【국문초록】

이 글은 언어 사용자가 ‘몸’과 ‘마음’의 특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야기하는지를 파악하고,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몸’과 ‘마음’의 의미 및 그들의 관련성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그간 학계에서는 ‘몸’과 ‘마음’의 의미 및 그들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의 문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형용사와 공기하는 ‘몸’이 쓰인 용례 164회, ‘마음’이 쓰인 용례 973회를 추출하여 그들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몸’과 ‘마음’의 의미, 나아가 ‘몸’과 ‘마음’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인의 인지 체계의 한 면을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장차 다른 언어와의 대조언어학적 연구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몸, 마음, <형용사+몸>, <형용사+마음>, 공기관계, 인지언어학, 말뭉치언어학, 말뭉치 기반 인지의미론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I. 들머리

이 글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언어 사용자가 ‘몸’과 ‘마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이야기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실제 언어 사용에서의 ‘몸’과 ‘마음’의 의미 및 그들의 관련성이 어떠한지를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말뭉치를 바탕으로 <형용사+몸>, <형용사+마음>¹⁾, 즉 ‘몸’, ‘마음’과 형용사와의 공기관계(co-occurrence relation)를 중심으로 그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의미 특성을 살펴볼 것인데, 이러한 까닭은 말뭉치 자료가 실제 언어 사용의 국면을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고, 이 또한 인지언어학에서 지향하는 ‘용법의 존 모형(usage-based model)’²⁾ 접근법에 잘 들어맞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형용사의 정의³⁾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형용사를 통해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세상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형용사와의 공기관계를 통해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몸’과 ‘마음’의 사용 패턴을 비교·분석하고 그 양상에 대해 인지언어학적 해석을 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개별적으로 ‘몸’의 의미 확장을 살펴본 배도

1) ‘몸’과 ‘마음’을 수식하는 관형어 가운데 본 논의에서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에만 초점을 두었기에 <형용사+몸>, <형용사+마음> 형으로 제시한다.

2) Langacker(2000)에서는 언어의 동적인 모습을 자연스러운 형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동적 용법의존 모형’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다(임지룡 외 옮김 2004: 144 재인용).

3)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상태·존재를 표현하는 품사의 하나(<국어국문학자료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6808&cid=432&categoryId=432>).

용(2003), ‘마음’의 개념화 양상을 살펴본 이종열(2006), 지인영(2006) 등이 있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 연구 방법과는 다르다. 배도용(2003)은 어휘의미론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 연구이고, 이종열(2006), 지인영(2006)은 ‘마음’의 개념적 은유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들의 논의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몸’과 ‘마음’을 모두 사물(실체물)로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사물로 파악하였다면, 본고의 논의는 이 사물의 구체적인 성질·상태·존재를 언어 사용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사물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를 연구하는 논문이기도 하다. 선행 연구에서 이종열(2006)은 형용사의 관점에서 진행한 논의는 아니지만 본고의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마음’의 신체·감각적 개념화를 논의하면서 ‘마음’은 시각적 감각, 청각적 감각, 미각적 감각, 후각적 감각, 촉각적 감각과 함께 나타나면서 ‘생각’이나 ‘감정’, ‘성격’, ‘태도’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수용하되, 본 연구는 먼저 말뭉치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 다음으로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인지언어학 이론과 말뭉치언어학을 접목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2장에서는 연구 대상 및 방법 등 분석 말뭉치의 통계적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말뭉치에 나타난 <형용사+몸>과 <형용사+마음>의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 특성을 밝히고, ‘몸’과 ‘마음’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4장은 마무리 부분이다.

II. 연구 대상 및 정량 분석 특징

본 연구의 논의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DVD)이다. 여기서 세종 문어 형태 분석 말뭉치(약 1,000만 어절 규모)의 파일을 가지고, 현대 국어 기초 말뭉치 활용 시스템 한마루 2.0(이하 ‘한마루 2.0’) 검색기를 이용하여 <형용사+몸>, <형용사+마음>을 검색·추출하였다. 추출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 말뭉치 추출 정보

패턴	용례 수	추출된 용례 수 ⁴⁾	
		타입(type)	토큰(token)
<형용사+몸>		75	164
<형용사+마음>		290 ⁵⁾	973

<표1>에서 보듯이, <형용사+몸>, <형용사+마음>을 검색한 결과, <형용사+몸>은 유효용례 164회, <형용사+마음>은 유효용례 973회가 나타났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결합하는 형용사의 타입은 <형용사+몸>은 75회, <형용사+마음>은 290회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형용사+마음>이 <형용사+몸>보다 반복적으로 쓰인 총 횟수나 타입의 다양성 등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 사용의 폭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겠다.

4) Aronoff & Fudeman(2005)와 Bauer(2004: 102)에서는 접사의 유형 빈도(type frequency)를 “그 접사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다른 어휘소의 수”로 정의한 바 있다(남길임 2009: 70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의 타입(type)은 ‘몸’과 ‘마음’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형용사의 수로, 토큰(token)은 반복적으로 출현한 횟수를 포함한 총 출현 횟수를 가리킨다.

5) ‘정성스런’은 ‘정성스러운’에, ‘서먹한’은 ‘서먹서먹한’에, ‘그런’은 ‘그러한’에, ‘고우신’은 ‘고운’에, ‘미안스런’은 ‘미안스러운’에 포함시켰다.

문어 말뭉치에서 검색한 <형용사+몸>, <형용사+마음> 구성을 빈도순으로 목록을 제시하면 <표2>, <표3>과 같다. 이 목록을 통해 언어 사용자의 ‘몸’과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형용사+몸〉의 공기관계

순위	선행 요소	몸	횟수
1	무거운/아픈	몸	11
2	건강한		10
3	불편한		8
4	어린/작은		7
5	연약한		5
6	거대한/귀한 ⁶⁾ /성한/튼튼한		4
7	고단한/곤비한/구부정한/바쁜/실파한/육중한		3
8	가냘픈/검은/고운/진/깡마른/깨끗한/나른한/노곤한/따뜻한/배부른/부드러운/비싼/최악한		2
9	아름다운/추운/가쁜한/고달픈/굵은/그려한/기다란/끈끈한/납은/다부진/단단한/딱딱한/뚱뚱한/뜨거운/많은/말짭한/매끄러운/면/미거한/미끈한/비만한/비슷한/빈약한/소중한/실한/아리는/양상한/애꿎은/애절한/연한/열면/완벽한/자그마한/자연스런/자유로운/장중한/차가운/청정한/초라한/추한/통통한/푸른/풍만한/한가한/흰		1

〈표3〉 〈형용사+마음〉의 공기관계

순위	선행 요소	마음	횟수
1	미안한	마음	47
2	어린		31
3	따뜻한		28
4	기쁜/불안한		27
5	즐거운		26
6	반가운/순수한/편안한		21
7	경건한/안타까운/착한		16

6) 말뭉치에서는 ‘귀하신’으로 나타났다.

8	답답한	마음	14
9	섭섭한		13
10	홀가분한		12
11	슬픈/아픈		11
12	고운/느긋한/진실한		10
13	고마운/두려운/착잡한		9
14	가벼운/독한/서운한/측은한/허전한/호뜻한		8
15	깊은/나쁜/넉넉한/바른/분한/새로운		7
16	그러한/급한/넓은/아쉬운/어진/자유로운/정직한/좋은/죄송한/조조한		6
17	간절한/깨끗한/자비로운/조급한/조마조마한/행복한		5
18	가룩한/괴로운/그리운/단순한/따스한/맑은/무거운/쓸쓸한/우울한/죄송스러운/청정한/큰/키다란		4
19	결허한/관대한/교만한/너그러운/당연한/미묘한/맑은/벽찬/붉은/사랑스런/서글픈/선한/소박한/솔직한/쓰라린/아름다운/암담한/외로운/자상한/죄스러운/진정한/진지한/차분한/푸근한		3
20	간악한/감사한/거룩한/걱정스런/검은/검슨한/고독한/궁금한/극진한/끔찍한/다부진/담담한/든든한/만만한/모진/복잡한/부끄러운/부정한/불길한/불쌍한/불안스런/불필요한/비장한/비통한/뿌듯한/사사로운/삭막한/서먹서먹한/성스러운/숙연한/순진무구한/쓰린/애뜻한/약한/어두운/어리석은/언짢은/엄숙한/여린/올바른/음흉한/작은/절박한/절실한/젊은/정성스러운/정중한/조마로운/지극한/진솔한/점찍한/참담한/투명한/편한/평안한/평온한/한결같은/허무한/황당한/훌륭한		2
21	가난한/가쁜한/가혹한/각별한/감격스런/갑갑한/갑작스런/강한/개운한/건강한/건전한/고달픈/고만한/고요한/곧은/공손한/공연한/교활한/구차한/궁색한/귀찮은/그윽한/기꺼운/결끄러운/꽁한/나약한/냉철한/놀라운/눅눅한/다감한/다급한/다름없는/다행스러운/대견한/대범한/더운/두둑한/뜨끔한/만족한/메마른/못마땅한/무사하신/무서운/무안한/무정한/무참한/민음직스런/반듯한/방자한/부드러운/불편한/불행한/비감한/비겁한/뼈딱한/상냥스런/선량한/성마른/성실한/솔깃한/송구스런/순결한/순진한/숫된/스산한/슬기로운/시린/신기한/신묘한/썰렁한/쑥스러운/아득한/안된/안쓰러운/야릇한/야속한/어려운/어수선한/엄청난/영거주춤한/여간한/열없는/영악한/영원한/옹졸한/울적한/웬만한/으쓱한/은밀한/음란한/의로운/의아한/자랑스러운/자랄한/잔인한/잡스러운/정갈한/정다운/조그만/조용한/지겨운/지독한/지혜로운/차가운/참된/창피한/충분한/치열한/진절하/탐욕스러운/태평한/통쾌한/특정한/평정한/평화로운/포근한/하얀/하얗없는/한가로운/한가한/한갓진/합당한/해맑은/허탈한/호연한/호젓한/흔란한/황공한/황홀한/후련한/후한/호린/흡족한/흥겨운		1

<표2>와 <표3>은 <형용사+몸>, <형용사+마음>을 검색한 결과물을 빈도순으로 제시한 모든 목록이다. 앞서 <표1>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형용사+마음>의 토큰이 973회, <형용사+몸>이 164회로 <형용사+마음>의 토큰이 현저하게 많다. 타입에 있어서도 <형용사+마음>의 타입이 <형용사+몸>보다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형용사+몸>의 타입이 <형용사+몸> 전체 출현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형용사+마음>의 타입이 <형용사+마음> 전체 출현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특징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용사+몸>의 타입은 전체 비율의 45.73%, <형용사+마음>의 타입은 전체 비율의 2.98%를 차지하고 있다. ‘몸’은 구체적이기에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거나 할 수 있다. 따라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지거나 할 수 있어 다양하게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반면, ‘마음’은 추상적이다. 추상적이기에 ‘마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더구나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떤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 혹은 표현해야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는 타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몸’보다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형용사+마음>의 타입이 <형용사+몸>의 타입보다는 현저하게 다양하나 <형용사+마음> 자체에서 차지하는 타입의 비율은 2.98%로 많지 않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말뭉치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형용사+마음>이 <형용사+몸>보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 사용의 폭이 훨씬 넓다는 것은 분명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형용사+마음>이 <형용사+몸>보다 언어 사용자가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표2>와 <표3> 속에 나타난 양상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의 의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을 인지하고 이야기하는 언어 사용자의 모종의 인지능력의 존재를 검증할 수 있다. 또한 <표2>와 <표3>에서 굵고 기울임체로 표시된 것은 <형용사+몸>, <형용사+마음>에 공통적으

로 나타난 것들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Ⅲ. 말뭉치에 기초한 ‘몸’과 ‘마음’의 인지적 의미 분석

우리는 ‘몸’과 ‘마음’의 특성을 인식하고 이야기하기 위해 형용사를 통해 이들의 어떤 성질·상태·존재를 표현한다. 즉, ‘몸’과 ‘마음’의 의미가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앞서 제시된 말뭉치 검색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1. 〈형용사+몸〉의 의미 분석

사전⁷⁾의 정의에 따르면, ‘몸’은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이루는 전체, 그것의 활동 기능이나 상태를 뜻하거나 물건의 기본을 이루는 동체를, 또는 관형어 뒤에 쓰여 그러한 신분이나 사람임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형용사+몸>을 통하여 우리는 ‘몸’이라는 형상, 기능, 상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야기하는지, 즉 형용사를 통해 ‘몸’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몸’이 신분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성질·상태·존재 또한 어떤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되는지를 <표2>의 목록을 통해 헤아릴 수 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짚어 다루기로 한다.

- (1) 소파에서 **자그마한** 몸을 일으켜 쪽 껴다.
- (2) 고양이는 그 방이 추운지 **작은** 몸을 바르르 떨고 있다.

7) 이 글에서의 사전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정보를 참조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예문(1)(2)는 사물의 크기나 부피를 표현하는 ‘자그마하다’, ‘작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한 ‘몸’의 크기나 부피가 작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념이다. ‘몸’의 의미가 ‘자그마하다’, ‘작다’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예문(1)은 사람의 ‘몸’, 예문(2)는 동물의 ‘몸’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3) **낱은 몸** 버리고 새 몸으로 다시 이어져, 우리의 영혼과 소망은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 (4) 그녀의 **흰 몸**은 어두운 안개처럼 피어올라 방안을 가득 채웠다.

예문(3)(4)는 사물의 속성을 표현하는 ‘낱다’, ‘희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한 ‘몸’의 낱은 상태나 ‘몸’의 색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시각적인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몸’의 의미가 ‘낱다’, ‘희다’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 (5) 우리는 캄캄한 어둠속에서 **뜨거운 몸**을 쉬었습니다.
- (6) 숨이 끊긴 **차가운 몸**에서 꼬물거리던 이가 시체의 냉마 밖으로 하얗게 기어 나오기도 했다.

예문(5)(6)은 사물의 온도를 나타내는 ‘뜨겁다’, ‘차갑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한 ‘몸’의 온도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촉각에 속하는 온도 감각의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예문(5)의 경우는 ‘성 관계’의 의미를 뜻하는데 이는 사물(‘몸’)과 사물(‘몸’)의 접촉으로 인해 온도나 열기가 높아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표현이 생긴 것이다. 예문(6)의 경우는 실제로 숨이 끊기면 인체의 온도가 차차 사라지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경험으로 인해 이러한 표현이 나타난 것이다.

- (7) 은경은 돈을 얻기 위해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옛친구를 만나러 갔다.

예문(7)은 사물의 무게를 표현하는 ‘무겁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한 ‘몸’의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적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리적 경험이다.

- (8) 뱀은 가는 혀를 날름거리며 **긴 몸**을 꿈틀꿈틀했습니다.
(9) 뱀의 **기다란 몸**을 만졌습니다.

예문(8)(9)는 사물(동물)의 길이를 표현하는 ‘길다’, ‘기다랗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한 ‘몸’의 척도를 표현한 것이다. 이는 ‘몸’의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념인데, 동물의 ‘몸’의 의미가 ‘길다’, ‘기다랗다’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표3>을 보면 ‘마음’이 ‘길다’, ‘기다랗다’로 구체화되지 않는데 이는 후술하겠지만 ‘마음’이 그 소유자인 주체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동물의 ‘몸’에 사용된 ‘길다’나 ‘기다랗다’가 <형용사+마음> 구성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 (10) 지난해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이 4강진출로 일약 **귀하신 몸**이 된 것에 비하면 그의 이름이 낮은 팬들도 많다.

예문(10)은 사물의 가치를 표현하는 ‘귀하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한 ‘몸’의 가치를 평가한 것인데, 이 경우의 ‘몸’은 신분이나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몸’이 사람이나 신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이 확장된 것인데, 인지언어학에서는 이러한 용법을 환유(metonymy)⁸⁾ 기제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여기서 ‘몸’의 의미는 환유 기제가 먼저 작용하고 다음에 ‘귀하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신분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몸’은 사회적인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11) 자기도 갈매기에 못지않게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예문(11)의 ‘몸’은 구속이나 속박 따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의 ‘몸’은 또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은 ‘마음’을 소유하는 주체인 사람의 자유로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전의 의미 항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몸이 달다’나 ‘몸을 닦다’로 ‘몸’이 ‘마음’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는 ‘몸’속에 ‘마음’이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형용사를 통하여 우리가 인지한 ‘몸’의 성질·상태·존재를 구체화하여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몸’의 개념은 우리의 신체적·감각적·물리적 그리고 사회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이러한 ‘몸’의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이 ‘마음’을 이해하는 근원으로 작용한다.

2. <형용사+마음>의 의미 분석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마음’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8) 동일한 하나의 영역 안에서 두 개의 실체가 인접성 관계에 있는 경우, 한 실체 즉 ‘매체’가 또 하나의 실체 즉 ‘목표’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하는 인지 과정이라고 하겠다. 이 경우, ‘부분으로써 전체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함’이나 ‘전체로써 부분에 정신적 접근을 환기함’을 ‘개념적 환유 관계(conceptual metonymic relation)’라 하고 언어적 사례를 ‘개념적 환유 표현(conceptual metonymic expression)’이라고 한다(임지룡 2008: 194).

사람이 느끼는 감정, 의지, 생각 따위를 일으키는 작용이나 태도, 이런 것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사람의 어떤 관심, 심성 바탕, 호의의 감정, 힘 등을 뜻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형용사+마음> 구성에서의 ‘마음’은 ‘마음’의 소유자인 주체의 정신이나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표3>에서 공기하는 형용사 대부분이 추상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이른바 ‘감정 형용사’들이다. 자신이 스스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모두 인지 주체인 사람의 심리적인 경험을 표현한다(‘착한 마음’이 성격이나 품성, ‘검허한 마음’이 태도, ‘슬픈 마음’이 감정 등). 이는 사람이 느끼는 경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마음’ 또한 사람의 체험적 활동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겠다.

추상적인 감정 형용사 외에 ‘마음’ 또한 ‘몸’과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통해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를 구체화하여 표현한다.

(12)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늘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13) 모두들 후련하고 **가쁜** 마음들이었다.

예문(12)(13)은 사물의 무게를 표현하는 ‘무겁다’, ‘가쁘하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한 ‘마음’의 무게를 표현한 것이다. 무거운 사물을 들 때 몸은 무겁게 느껴져 힘들고, 가벼운 사물을 들거나 할 때 몸이 가볍게 느껴져 상쾌해지는 경험이 우리가 슬프거나 유쾌하지 않을 때 느끼는 경험, 부담 없이 즐기고 유쾌할 때 느끼는 경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생긴 것이다. 인지언어학에서 이와 같은 양상에 대해 은유(metaphor)⁹⁾ 기제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9) 개념적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영역으로써 낯선 목표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전략인데, 근원영역은 우리에게 익숙하며 상상하기 쉽고,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과

- (14) **큰 마음**으로 긍정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 (15) **작은 마음**을 우주라도 감쌀 수 있는 신묘한 마음으로 바꾸는 인연이 된 것이다.

예문(14)(15)는 사물의 크기를 표현하는 ‘크다’, ‘작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한 ‘마음’의 크기를 표현한 것이다. 즉 ‘마음’의 의미가 ‘크다’, ‘작다’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크기가 크면 공간이 넓고 크기가 작으면 공간이 좁다. 이런 물리적이고 공간적 경험이 ‘마음’으로 전이되어 위와 같은 표현이 생긴 것이다. 이는 예문(16)과도 관련이 있다.

- (16) 다행히 피해자 가족이 **넓은 마음**으로 합의를 해 줘서 보상금만 내고 마무리가 되었다.

예문(16)은 사물의 넓이를 나타내는 ‘넓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한 ‘마음’의 아량을 표현한 것이다. 어떤 사물이 처해 있는 공간이나 위치가 넓어서 속이 후련하거나 하는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표현된 것이다.

- (17) 수혜의 음성이 효철의 **차가운 마음**을 녹인 걸까.
- (18) 순간 왠지 **뜨끔한 마음**에 그는 고개를 마구 저었다.

예문(17)(18)은 사물의 온도를 나타내는 ‘차갑다’, ‘뜨끔하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한 ‘마음’의 온도를 표현한 것이다. 즉 ‘마음’의 의미가 ‘차갑다’, ‘뜨끔하다’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차가움’을 경험할 때 동반되는

문화 속에서 작용하는 직접적 경험으로부터 유래하는 반면, 목표영역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것이며, 사회 문화적으로 조작된 현상이다(임지룡 2008: 169).

개념화자의 부정적인 인상이나 판단에 의해 의미가 확장되어 ‘차가운 마음’ 또한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뜨끔하다’도 불에 닿은 것처럼 뜨거운 경험에 ‘마음’으로 전이되어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 (19) **젊은 마음**과 시들지 않는 용기만이 강을 따라 내려가지 않고 강을 건너 새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예문(19)는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젊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우리가 인지한 ‘마음’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젊은 몸은 혈기가 왕성하다. 사람마다 젊기를 원하지 늙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긍정적인 젊음이 ‘마음’으로 전이되어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 (20) 시골 어린이들의 **맑은 마음**이 한아름 담겼다.
 (21) **붉은 마음**을 찢어 찢었습니다.
 (22) 어린이들에게만은 항상 **밝은 마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예문(20)(21)(22)는 시각적 차원에서 우리가 인지한 ‘마음’의 모양새나 보이는 대상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다. 추상적인 ‘마음’은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시각적 차원의 ‘맑다, 붉다, 밝다’ 등 형용사를 통해 ‘마음’을 구체화하여 표현한다. 여기서 ‘마음’의 의미가 ‘맑다’, ‘붉다’, ‘밝다’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음’ 또한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지한 ‘마음’의 성질·상태·존재를 다양한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층위에 존재한다. 이 층위가 신체적 경험, 물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위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다. 물론, 실제 양상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다¹⁰⁾.

3. ‘몸’과 ‘마음’의 상관성

이 절에서는 ‘몸’과 ‘마음’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앞 절에서도 간간이 설명을 한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형용사+몸>과 <형용사+마음> 구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형용사를 중심으로 ‘몸’과 ‘마음’의 상관성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동일한 형용사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가 유사하거나 인접하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경험 간의 유사성을 찾는 능력, 인접성을 파악하는 능력 등 보편적인 인지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언어 사용자가 인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 또한 가능한 것이다.

앞서 <표2>와 <표3>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듯이, <형용사+몸>의 사용빈도 중 상위 1, 2, 3, 4가 모두 <형용사+마음>에 출현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통적으로 나타난 형용사 목록을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4〉 ‘몸’과 ‘마음’에 공통적으로 공기하는 형용사

선행 요소	몸/마음
무거운/작은/어린/검은/따뜻한/차가운/부드러운/아픈/고달픈/건강한/불편한/고운/아름다운/깨끗한/청정한/다부진/자유로운/한가한/그러한	몸/마음

- 10) ‘몸’과 ‘마음’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공기하는 모든 형용사의 양상을 의미 분류하여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표2>와 <표3>의 모든 양상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지면의 제약이 너무 크고 이 글의 분석으로 <형용사+몸>, <형용사+마음>의 경험 층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가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이기 위해 형용사의 의미 분류가 필요하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무거운

- (23) 퇴원을 한 다음에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혼자서 밥을 끓여먹어야만 했다.
- (24) 슬픔을 품고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도 일으키지 못하는 듯한 고뇌.
- (25) 돌맹이를 얹어놓은 듯 **무거운 마음**으로 초막을 뒤로 하다.

예문(23-25)은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용사 ‘무겁다’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런 무거운 몸으로 인해 우리는 예문(23)처럼 일으키려도 일으키지 못하는 듯한 고뇌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슬픔에 잠겼을 때의 경험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마음’이 유쾌하지 않고 우울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무겁다’는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하여 표상하는데 이는 우리가 인지한 ‘몸’의 경험에 기반을 둔다.

• 작은

- (26) 할머니는 가뜩이나 **작은 몸**을 웅송그리고 있다.
- (27) 아주 **작은 마음**의 여유 정도는 갖고 사는 삶이 더 의미 있지 않겠는가?

형용사 ‘작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성질·상태·존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예문(26)에서 몸집이 작다는 것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넓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공간적 경험이 ‘마음’으로 전이되어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간이 넓어야 넉넉하게 느끼게 되는 신체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 어린

- (28) **어린 몸**에 신문 1백 50여부를 껴안고 새벽길을 줄달음쳤다.
 (29) 물줄기가 **어린 몸**을 삼켜 버릴 것만 같이 느껴졌다.
 (30) 그 슬픈 이야기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던지.

예문(28-30)은 예문(26-27)과 관련성이 있다. 나이가 많지 않거나 작을 때 ‘어리다’로 표현한다. ‘어리다’면 예문(29)와 같이 힘이 없다. 이러한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예문(30)처럼, ‘마음’의 경험이 적거나 여릴 때 ‘어리다’라는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또한 우리가 인지한 ‘몸’의 경험에 기반을 둔다.

• 검은

- (31) 까치는 새들이 떨어뜨린 털들을 주어다 **몸**에 붙였다. 그러자 **검은 몸**이 제법 희게 보였다.
 (32) 내가 아기를 빼앗아 달아나야겠어. 이렇게 **검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예문(31-32)은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 · 상태 · 존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용사로 구체화된 것이다. 예문(31)은 아니지만 ‘검다’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거나 부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 예컨대, 검은 먹의 빛깔과 같은 ‘어두움’, 어두움으로 인한 ‘두려움, 슬픔’ 등이 그러하다. 이처럼 ‘검다’를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개념화자의 부정적인 인상이나 판단이 ‘마음’으로 전이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 따뜻한/ • 차가운

- (33) 나는 **따뜻한 몸** 관리를 위해 늘 조심한다.
 (34) **따뜻한 마음**에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져왔습니다.
 (35) 숨이 끊기 **차가운 몸**에서 꼬물거리던 이가 시체의 넘마 밖으로 하얗게

기어 나오기도 했다.

(36) 수혜의 음성이 효철의 **차가운 마음**을 녹인 걸까.

예문(33-34)(35-36)은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용사 ‘따뜻하다’, ‘차갑다’를 통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예문(33)처럼 ‘몸’이 따뜻한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또한 따뜻한 음식을 먹거나 따뜻한 알맞은 온도 하에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따뜻함’에 대한 경험주의 긍정적인 인상이나 판단이 ‘마음’으로 전이되어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반면 ‘차가움’은 죽음으로 인한 인체의 차가움 등을 경험할 때 동반되는 개념화자의 부정적인 인상이나 판단에 의해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

• 부드러운

(37)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자주 껴안고 쓰다듬는 **부드러운 몸**의 접촉이 많다.

(38) 그는 **부드러운 마음** 속 깊이깊이 슬픔을 느꼈다.

예문(37-38)은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드럽다’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닿는 느낌이 거칠지 않은 ‘부드러운’ 접촉으로 인한 긍정적인 인상이나 판단이 ‘마음’으로 전이되면서 ‘마음’의 소유자인 주체의 거칠지 않은 성격을 ‘부드럽다’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이 또한 촉각인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이다.

• 아픈

(39) 군인들은 국민도 아니라는 건지, 수술 후 **아픈 몸**으로 돌아가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다.

(40) **아픈 마음**은 달랠 길이 없다.

예문(39-40)은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아프다’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면 괴로움을 느낀다. 이런 괴로움은 우리가 슬플 때 느끼는 괴로움과 유사하다. 또한 예문(39)에서 보듯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게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도 ‘마음’이 우리가 인지한 ‘몸’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어쩌면 ‘마음’은 ‘몸’-‘몸/마음’-‘마음’이라는 ‘몸’의 연장선에 있을지도 모른다.

• 고달픈

- (41) **고달픈 몸**과 마음을 달래 보기는 하였으나 정말 기분이 왜 그런지
울적하였다.
(42) **고달픈 마음** 웃음으로 감춘다.

예문(41-42)은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고달프다’로 표현한 것이다. 몸이 고단할 때의 부정적인 경험이 ‘마음’으로 전이되어 몹시 힘든 ‘마음’의 의미 특성이 ‘고달프다’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 건강한

- (43) 장업윤(89세)씨도 고령에 **건강한 몸**으로 동석해 주었다.
(44)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

‘건강하다’의 사전 정의에 따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육체적인 ‘몸’, 정신적인 ‘마음’의 탈이 없음을 ‘건강하다’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다. 또한 예문(44)에서 보듯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는 것은 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 불편한

(45) **불편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 가면서 마을을 싸다닌다.

(46) 내 **불편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다.

‘불편하다’도 마찬가지로 사전적 정의에 기술된 것처럼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괴로울 때 사용한다.

• 고운/• 아름다운

(47) 그 무서운 바다에 **고운 몸** 던질 정도로 당신은 많이 울었구나.

(48) 청소년들이 **고운 마음**을 키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49) 바로 이미지로 먹고 사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빈다. 그들에겐 젊고 **아름다운 몸**이 재산이니까요.

(50) 청춘의 어느 날 문득 보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내어 입산을 했다고 한다.

‘곱다’, ‘아름답다’는 모양이 좋거나 어떤 좋은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곱다’나 ‘아름답다’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마음’으로 전이되어 좋은 품성, 감정 등을 표현한다.

• 깨끗한/• 청정한

(51) 무례하게 건방 떠는 사나이의 모습이 임금의 **깨끗한 몸**에 비쳤습니다.

(52) 인간은 **깨끗한 마음**이 되어 생명의 원천인 우주와 하나가 된다.

(53) **청정한 몸**으로 석로의 문하에 들어가 오로지 사부의 가르침에 따라 몸과 마음을 움직였다.

(54) **청정한 마음**으로 반듯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자신이 내면의 힘을 은밀

하게 쏟아붓는 행위.

‘깨끗하다’, ‘청정하다’ 또한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깨끗하다’나 ‘청정하다’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더럽지 아니하거나 맑은 물리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 다부진

- (55) **다부진** 몸에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도 분위기에 따라 조금할 뿐이다.
 (56) **다부진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문(55-56)은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용사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몸’이든 ‘마음’이든 튼튼하고 야무진 상태의 의미가 ‘다부지다’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 자유로운/·한가한

- (57) 자기도 갈매기에 못지않게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58)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마음**을 지녀야 한다.
 (59) 이미 **한가한** 몸이 아니라 남편과 시댁에 매인 몸이었다.
 (60) 한심하고 **한가한 마음**의 상태를 요구한다.

예문(57-58), (59-60) 역시 우리가 인지한 ‘몸’과 ‘마음’의 어떤 성질·상태·존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형용사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예문(57)(59)처럼 구속이 없는 상태, 예문(58)(60)처럼 어떤 여유를 표현하고자 할 때 형용사 ‘자유롭다’, ‘한가하다’를 통해 구체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 **그러한**

(61) 우리는 **그러한 몸**이 아름답다고 여긴다.

(62) **그러한 마음**은 나쁜 아니라 속죄도 마찬가지였다.

예문(61-62)의 ‘그러하다’는 ‘그렇다’의 본말로 상태·모양·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는 것이다. 이는 ‘그러하다’를 통해 ‘몸’과 ‘마음’이라는 실재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몸’을 실재물로 인식하고 이것이 추상적인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작용하였다.

이상 <형용사+몸>과 <형용사+마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형용사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몸’과 ‘마음’이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이는 형식주의 의미론에서 두 개를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입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인지의미론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 ‘몸’과 ‘마음’은 밀접한 관련성¹¹⁾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지언어학의 체험주의(experientialism) 관점에 의하면 우리의 경험에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경험과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경험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대부분이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경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를 ‘몸’의 주요 범주로, 후자를 ‘마음’의 주요 범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형용사로 구체화된 ‘몸’과 ‘마음’의 언어 사용 양상을 통해 이 세상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의 인지능력을 엿볼 수 있었다¹²⁾. 결국 Johnson(1992)에서 제

11) <표2>와 <표3>의 형용사들을 살펴보면 말뭉치 검색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논의는 말뭉치에 기초한 말뭉치의 용례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양상에 한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12) 인지언어학에서 언어능력은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서로 동기화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시한 것처럼 ‘몸은 마음속에 있고, 마음은 몸속에 있으며, 몸과 마음은 세계의 일부이다.’¹³⁾

IV.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는 <형용사+몸>, <형용사+마음>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의미, ‘몸’과 ‘마음’의 관련성을 이야기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간추리고 남은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이 글은 형용사의 의미, 즉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성질·상태·존재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통해 ‘몸’과 ‘마음’의 의미, 나아가 ‘몸’과 ‘마음’의 상관성을 헤아려보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세상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엿볼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이 글은 말뭉치에 기반을 두고,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로써 인지언어학 이론과 말뭉치언어학을 접목시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과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 사용자의 사고 체계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글에서 제시된 말뭉치 목록 <표2>와 <표3>은 장차 한국어 교육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 원어민다운 표현력을 키우기 위해 고빈도 순위를 먼저 가르치는 등 한국어 및 외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반영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임지룡 외 옮김 2004: 174), 즉 언어 사용과 언어능력은 별개가 아니다.

13) 노양진 옮김(2000: 13) 재인용.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몸’과 ‘마음’의 형용사와의 공기관계에만 주안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형용사와의 공기관계뿐만 아니라 동사와의 공기관계, 그리고 <형용사+몸>, <형용사+마음>의 구조뿐만 아니라 <몸+형용사/동사>, <마음+형용사/동사> 등 구성을 다양하게 고찰하였다면 더욱 풍성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명사와 동사나 형용사가 세상을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개념적 개체(즉 사물과 관계)로 구조화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보는 인지언어학적 입장에서 먼저 형용사를 통해 구체화된 ‘몸’과 ‘마음’의 의미 특성을 살펴본 점은 의의가 있다. 이러한 작업이 앞으로의 ‘몸’과 ‘마음’의 의미 연구에 기반이 될 것이고, 더 많은 패턴을 고찰함으로써 그 결론 또한 가변적으로 보완될 것임을 밝혀두면서 후속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남길임, 『텍스트 장르와 접미사의 사용 양상: ‘-적’과 ‘-적’ 파생어를 중심으로』, 『한글』 283, 한글학회, 2009, pp.63-91.
- 배도용, 『우리말 ‘몸’의 의미 확장 연구』, 『언어과학연구』 24, 언어과학회, 2003, pp.61-82.
- 이종열, 『신체적 경험에 의한 ‘마음’의 개념화 양상』, 『한국어 의미학』 20, 한국어 의미학회, 2006, pp.205-230.
-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 _____, 『말하는 몸: 감정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6.
- _____,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 석수영, 『한·중 감정 표현의 개념화 양상: 미각어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68, 언어과학회, 2014, pp.191-214.
- _____, 『한중 온감어의 감정 전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분석』, 『국어교육연구』 55, 국어교육학회, 2014, pp.181-210.
- 지인영, 『마음 은유』,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pp.93-102.
- Kövecses, Z.,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김동환·최영호 옮김, 『은유와 감정』, 동문선, 2009.)
- Kövecses, Z., *Language, Mind, and Culture: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임지룡·김동환 옮김, 『언어·마음·문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역락, 2010.)
- Johnson, M.,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이기우 옮김, 『마음 속의 몸: 의미 상상력 이성의 신체적 기초』, 한국문화사, 2000.)

Abstract

A Corpus-based analysis of Cognitive semantics of “body” and “mind”
- take “adj+body” and “adj+mind” as examples -

Xi, Xiu-Ying

The way how we understand and express “body” and “mind”, and how the two words are related with each other in real life was discussed on the basis of cognitive linguistics principles, and combined with corpus linguistics analysis. Our understanding of “body” and “mind” is still insufficient yet, the co-occurrence relationship between “adj+body”(164) and “adj+mind”(973) in corpus was detailed explained, the Semantic features of the two words and there correlations was disclosed. The research will help to reveal the Korean cognitive system, and also the further compare study between Korean and other languages.

Key Word : body, mind, co-occurrence relation, cognitive linguistics, corpus linguistics, corpus-based cognitive semantics

석수영

소속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소 : (702-701) 대구 북구 대학로 80

전화번호 : 010-8004-5866

전자우편 : seok.sy@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